

‘물’ 이어 ‘전기’도…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전격전 탄력

국무회의서 전력 예타 면제 의결

6.3GW 규모 공급망 구축 본격화

2029년부터 3GW…단계적 확대

800조원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기반시설인 용수와 전력 공급망이 잇따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으면서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광주 공군항 부지에 들어설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의 전력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를 심의·의결했다.

예타 면제 의결 대상 사업은 전력 1단계 지중선로(신장성/신광주 분기-산단 선로 약 23km) 공사로, 사업비는 약 9천300억원이다.

지난달 25일 용수 인프라 구축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된 데 이어 전력망 구축 사업까지 예타 문턱을 넘으면서 반도체 산단 가동에 필수적인 양대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특히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문제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핵심 과제로 꼽혀온 만큼 이번 예타 면제로 관련 사업 추진 일정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산단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약 6.3GW로 보고 구체적인 공급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차 지중선로를 통해 2029년부터 산단에 약 3GW를 공급하고 이후 송전선로와 변전소를 추가



신기한 로봇 강아지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 1층에 마련된 AI 디지털 체험존을 찾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시로봇강아지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있다. /김예리 기자

가 구축해 6GW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예타 면제 의결로 통상 9년 안팎 걸리는 송전선로·변전소 건설 사업이 빠르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와 함께 반도체 산단에 하루 66만톤의 산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인프라 확충도 추진되고 있다.

동북담 30만, 주암·장흥담 15만, 보성강댐 10만, 나주담 10만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광주 제1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수 가운데 하루 30만t을 고도처리해 일반 공정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장기적인 용수 수요 증가에 대비한 추가 공급

원 확보도 검토된다. 동북담의 저수용량을 늘리기 위한 증고와 함께 나주호 농업용수 일부를 산업용수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전력·용수 인프라가 모두 예타 면제를 받으면서 사업계획 구체화와 공급체계 확정 등 후속 절차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변은진 기자

전남광주, 통합 첫 국책사업 ‘양자 클러스터’ 선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양자 클러스터 공모에서 양자통신 분야 국가 거점으로 최종 선정돼 광융합·에너지·인공지능(AI)·우주산업을 아우르는 차세대 양자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선다.

1일 전남광주특별시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양자 클러스터 지정 공모사업’에 ‘전남광주양자클러스터’가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해 양자컴퓨팅·양자통신·양자센싱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핵심 국책 사업이다.

광주와 전남이 힘을 모은 초광역 동맹의 결실이자,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거둔 첫 국가 공모사업 선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내년부터 4년간 1천400억 투입

광주-나주-해남-고흥 거점 연계

세계 최초 ‘양자 혁신도시’ 구축

전남광주 양자 클러스터 사업에는 2027~2030년 4년간 국비 1천억원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천400억원이 투입된다.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기)를 기술거점(HUB)으로 삼고 전남의 주요 도시를 수요거점(SPOKE)으로 연계해 완성형 양자통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광주는 양자통신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제조 평가 실증의 중심 거점 역할을 맡고, 나주

는 전력망 에너지 보안 분야, 해남은 AI 고성능 컴퓨팅(HPC) 데이터 분야, 고흥은 우주 위성통신 분야와 연계해 양자기술의 산업적 활용 기반을 넓혀갈 계획이다.

전남광주가 이번 공모에서 최고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지난 25년간 구축해 온 국내 유일의 광융합산업 기반 시설이 한 몫 했다. 양자기술의 핵심인 빛(광자)을 제어하는 기술이 광주 지역의 광통신·광소재 기반 시설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남 지역의 에너지·우주·항공 기반 시설을 연계해 차세대 보안 시스템 실증 능력을 입증한 점이 주요했다.

이 사업에는 광주테크노파크, 전남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

과학기술원, 전남대학교 등 연구·지원기관과 대학이 참여한다.

SK브로드밴드, 한전KDN, 아이디퀀트(IIQ), 우리로, 한국첨단소재, 오이솔루션 등 관련 기업도 힘을 보탠다.

특별시는 이를 바탕으로 양자 전환 및 적용 기업 60개 사 육성을 목표로 기술 개발부터 제조, 상용화까지 이어지는 자생적 산업생태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양자 전문 실무 인력 400명 양성을 목표로 대학 내 전문학위 과정과 석박사 과정 개선을 추진한다.

광 반도체 AI 등 인접 분야 재직자를 위한 교육·실습·취업 연계 양자전환 과정을 운영해 기존 산업인력의 양자전환(QX)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민행배 시장은 “이번 양자 클러스터 선정은 계기로 산·학·연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전남광주를 신산업의 패권을 거머쥐는 ‘세계 최초의 양자 혁신도시’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5·18 유적지 세계유산 등재’ 첫발

기초연구사업 연구지원 공모 선정

5·18 유적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기초연구 사업이 국가유산청 연구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의 ‘2027년 전략적 세계유산(예비잠정목록) 연구 지원 공모사업’에 5·18 유적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기초연구가 선정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5·18민주화운동 50주년 기념을 설치해 5·18 유적지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중장기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국내외 사례 조사를 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전문가 자문단과 유관기관 실무 전담팀(TF) 구성 등 민·관·학 협력체계를 구축해 등재 전략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별시는 2011년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이어 5·18 유적지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K-민주주의 상징 5·18의 세계화와 함께 광주가 민주주의 역사교육의 장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초연구는 총사업비 1억원(국비 50%·지방비 50%)으로 2027년 초 공개입찰을 통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기초연구에는 5·18 유적지 현황 및 가치 조사, 세계유산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핵심서사 도출, 등재 유적지 범위, 보존·관리체계 및 법·제도 검토, 세계유산 등재 추진전략 수립 등이 포함된다.

특별시는 기초연구가 마무리되면 2028년 국가유산청에 잠정목록 등재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5·18 유적지는 지난해 예비 잠정목록 선정을 위한 예비풀에 선정됐다.

세계유산 등재 절차는 국가유산청의 잠정목록 선정, 우선등재 목록 선정, 유네스코 예비 평가,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등재 신청,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 심사·심사, 세계유산위원회 최종 결정 순으로 통상 10여년이 소요된다.

조례에 따라 현재 관리되고 있는 5·18 사적지는 옛 전남도청 본관·상무관 등 광주 지역 30개소와 화순군청 등 전남 지역 30개소다.

옛 전남도청 본관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도청회의실은 시지정문화유산, 상무관은 시 5·18사적지로 관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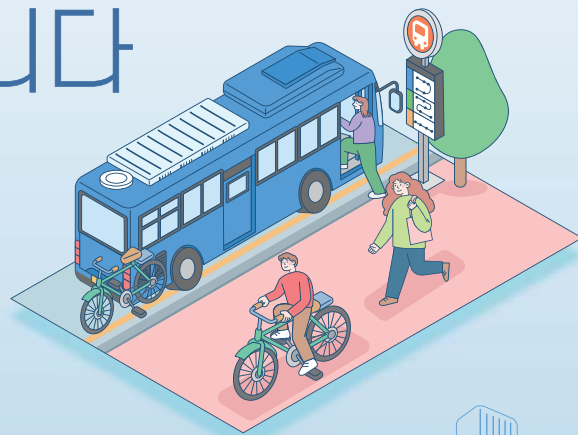
여경희 5·18민주화운동 50주년기념단장은 “5·18민주화운동은 세계적인 대중 공동체 민중항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5·18 유적지에 담긴 인류 보편적 가치가 기초연구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수희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